



기자는 3시간이지만 그들은 42년이었다



지난 3월11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가정집에서 만난 5·18 피해자 윤동현 씨(78)가 당시를 떠올리며 눈물 흘리고 있다. 윤 씨는 80년 5월20일 차량 시위대의 선두에서 대청운수 3번 버스를 몰았던 버스 기사다.

식당 일을 하던 아줌마, 시내버스 운전사, 군대를 갓 제대한 청년, 양복점 종업원, 택시 운전사, 나전칠기공, 광주시청 공무원, 슈퍼 주인, 임신부, 재단사, 취업 준비생, 버스 안내원...

지난해 11월부터 만난 ‘광주시민’들이다. 여느 누구나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 하지만 42년 전 ‘그날’ 이후 이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이들은 5·18 피해자들이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보상법을 재조명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시리즈를 기획했다. 6개월여 간 25차례 기사를 썼다. 매주

1명씩 만나 인터뷰했다.

그동안 만난 사람은 20여 명. 그중 단 한 명도 ‘간첩’은 없었다.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등 전문 ‘꾼’도 아니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한국 사회의 근본 모순,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운동을 해왔던 이들도 드물었다. 모두 평범한 우리네 이웃들이었다.

아픔은 전이된다. 그들은 40여 년 전 상처를 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 아픔은 내 가슴에 그대로 박혔다. 그 울림은 그들을 잊을 수 없게 했다. 스물여덟 서울 출신의 3년차 병아리 기자가 80년 5월에 제대로 휘말려 버린 셈이다.

첫 만남은 항상 ‘경계’로 시작한다. 그들은 40여 년간 왜곡한 언론을 믿지 않았다. 젊은 기자는 집안 가득 풍기는 곰팡내와 술 냄새, 껌찌죄한 모습의 취재원을 보고 걱정이 앞섰다. 낯선 집에 들어서서 내내 속으로 한숨만 내쉬었다.

라포(공감대 형성)가 먼저였다. 일부러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고, 웃으며 살짝 대한다.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과 입이 열린다. 그쯤 되면 집 냄새도 익숙해지고 자세도 편하게 앉는다. 그들을 보는 시선도 바뀐다. 취재원이 42년간 꼭꼭 눌러 담은 깊은 피눈물을 토해냈다.

올해 2월 만났던 이영자 할머니(79)의 경우는 오후 2시에 만났으나 해가지고 오후 7시가 돼서야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오랜 세월 간첩으로 몰려서 손가락질 당하고 살았다”며 손녀딸 같은 기사를 껴안고 울었다.

자신의 치부와 고통을 털어놓는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아이처럼 울었다. 엉엉 소리 내 우는 그들을 손녀딸뻘인 기자가 껴안았다. 주섬주섬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다. 이야기를 듣다가 감정이 솟구쳐 내가 더 울고 위로받은 날도 있다. 연고 하나 없는 광주에서 기자는 지



지난 2월18일 오후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5·18 당시 간첩으로 몰렸던 주부 이영자(79) 할머니와 세종시에서 온 박정숙씨(57·여)가 포옹하고 있다. 앞서 <뉴스1>이 보도한 이영자 할머니 사연을 보고 박 씨 가족은 그를 찾아 광주에 왔다.

지난해 12월1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단칸방에서 만난 김공휴 전 5·18구속부상자회 부회장(61)의 모습. 김 씨는 80년 5월 당시 도청을 마지막까지 지킨 기동타격대로 활동했으나 정신적 트라우마로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친구를 무려 스무 명이나 얻었다.

모두가 안타깝고 절절한 사연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도 유난히 기억나는 이가 있다.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전남도청을 지켰던 최후의 기동타격대원 김공휴 씨(62)다.

지난해 12월 만난 김공휴 씨는 과거 5·18단체 중 하나인 구속부상자회의 부회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 말도 잘할 테고, 앞으로의 과제와 바람에 대해서도 유난히 할 말이 많으리라 생각했다.

그가 재임 당시 5·18이나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 입은 이들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 건립에 앞장섰다는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견해가 남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거 인터뷰 기사도 찾아 읽었다. 9년 전, 심리치료를 마친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치료를 받았을 그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지 기대를 한가득 안고 그를 만났다.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이 깨졌다.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조용히 죽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인생을 찢어버리고 싶다니까요. 그때 인터뷰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순간 좀 나아질 뿐이지, 이 고통은 죽어야만 끝납니다.”

삶에 대한 희망도 아쉬움도 없었다. 해볼 만큼 해봤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고 했다. 덤덤하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가 낭떠러지에 매달려있는 것처럼 보였다.

죽고 싶은 이유는 80년 5월 당시 겪었던 고문과 구타의 후유증 때문이었다. 하도 오랜 시간 악몽을 겪었기에 몸도 쇠약해졌고 계속되는 5·18 왜곡과 편향, 오월 단체의 집안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고 했다.

삶에 미련이 없다는 그는 울지도 않았다. 무뎠게 세월을 털어놓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야속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 앞으로 배웅을 나온 그에게 내년 5월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다시 그를 만나고, 안부를 묻는 말동무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김 씨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지 마세요. 그뻘 제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테니...”

“그러시면 안 되죠, 꼭 건강하셔야

해요.”

몇 번이나 그의 손을 붙잡았지만 김 씨는 멋쩍게 웃으며 대문을 닫았다. ‘끼익’ 굳게 닫힌 철문 소리가 마치 그의 마음 같았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몇 달이 흐르고도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다.

올해 오월, 김 씨를 찾아뵙겠다고 한 약속이 떠올랐다. 5·18 전야제와 기념식에서 그의 모습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못된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았다.

급하게 오월 단체 회원을 찾아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안부를 물었다. “아직 잘 계신다”고 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에게 되물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겠죠?”

며칠 전 차량 내비게이션 속 최근 방문 목록이 꼭 찻다는 알림 문구가 떴다. 주소를 몇 개 지워야만 했다. 맨 아래 그의 집 주소가 보였다. 6개월째 가지 않은 장소지만 그의 집 주소만은 지우지 못하고 남겨 뒀다. 그걸 지우면 그를 지우는 것



지난 5월17일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 일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의 모습. 축제 참여자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42년 전 그날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지난 6월23일 광주 남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시리즈를 취재하고 있는 <뉴스1> 기자들과 5·18단체 관계자의 모습. 왼쪽부터 5·18민주부상자회 김형섭 복지국장, 뉴스1 이수민 기자, 뉴스1 박준배 기자, 5·18민주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같아서, 다신 못 볼 것 같아서. 어쩌면 그 집 주소는 영원히 지우지 못할 것만 같다.

비단 김공휴 씨만이 아니다. 오월 광주, 유난히 힘들었던 그해 봄을 버텨낸 이들의 소망은 전부 ‘이해’와 ‘공감’이었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이야기했다. 42년 전의 기억을 끄집어 놓는 이유는 “그날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시리즈 기사가 송고되고 나면 그 주 기사의 주인공

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하나같이 진실을 알리는 데 힘써줘서 고맙다며 가르친 것 하나 없는 어린 기자에게 “선생님, 선생님” 하신다.

어딘가 가슴이 먹먹하다.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들에게 괜한 상처를 주게 될까 봐 겁이 난다. 전화를 끊을 때 꼭 당부하는 말이 있다. “댓글은 보지 마세요.”

수십 또는 수백 개의 댓글. 댓글은 날카로운 무기다. 42년 전 총칼로 시민을 겨눴던 계엄군처럼, 무자비한 댓글들은 아직도 이들의 심장을 후벼판다.

‘홍어’, ‘폭도’, ‘7시 라도’, ‘유

공자 명단 공개’, ‘라도 공화국’, ‘오텍’ 등 일베식 용어가 뒤덮는다.

42년이다. 한 세대가 바뀌었다. 강산은 네 번도 넘게 변했다. 3시간의 인터뷰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전이된다. 그들은 42년이다. 그런데도 5·18은 이념의 양극단에서 홀로 모든 충알받이가 되고 있다.

5월 광주는 어둡고 무겁다. 5월 광주를 살아가는 기자는 오늘도 어깨에 무거운 짐 하나 얹고 새로운 취재원을 만나러 간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왜곡·편협이 아닌 제대로 된 5·18 평가를 위한 집이다.

대문이 열리면 그날의 고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어른신이 나와 자기 삶을 털어놓는다. 어느새 우린 새 친구가 된다.

이영자 아줌마, 윤동현 버스기사, 김상집 제대 청년, 변형섭 양복점 종업원, 장훈명·전종태 택시기사, 김공휴 나전칠기 공, 손천만 계장, 김홍주 슈퍼사장, 임신부 김영애, 김일모 재단사, 취업준비생 이종현, 버스 안내원 이무현….

평생 잊을 수 없는, 잊히지 않을 ‘광주 시민’ 들이다. 오월 광주는 나의 잊을 수 없는 취재원이다. 🙏